

2023년 7-2

#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7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 국회미래연구원(2023년 6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미국은 6월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인플레이 지표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 기대감이 고조
- 일본은 5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日銀(BOJ)의 현 금융완화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로존은 역내 실물지표들의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중앙銀(ECB)의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중국은 지난 6월 내·외수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7.1%)를 하회하는 6.3%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
-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으로 반등세
- 유가는 7월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IEA의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 하향, 달러화 강세 전환 등의 영향에도 80달러까지 상승

###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5월 전산업생산 +1.3%

- 지난 2분기 국내 실질GDP가 소비와 투자, 수출의 동반 감소 영향에도 수입 급감에 따른 순수출(수출 - 수입) 확대에 힘입어 전기비 성장률이 0.6%로 상승
  -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증가 전환(전월비 3.2%)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 증가율(1.3%)을 기록

### □ 금 용 : 6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7월 11일 ~ 25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반기말 계절요인 등에 의해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의 현저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단기 하락에 따른 경계감 등 영향으로 소폭 반등
-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부동산 지원 조치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부진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소폭 반등

####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제조업ICT는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중공업과 경공업에서도 상당폭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업종이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2.0% 증가

#### □ 고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6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둔화된 반면,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보합(1.2% → 1.2%)

####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IT업황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에도 IT품목들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6.0% 감소(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하고, 지역별로는 특히 EU, 중남미, 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 전환

## 1. 해외경제

### □ 미국 : 6월 실물지표 약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실상 마무리 기대 고조

○ 지난 6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은 불투명. 최근에 인플레이지표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가능성 기대감이 고조

- 산업생산은 제조업(전월비 -0.3%)을 비롯해 광업(-0.2%), 유틸리티(-2.6%), 등의 동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0.5%)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4%) 등 감소에도 자동차·부품(0.3%) 등의 증가에도 소폭 증가(0.2%)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46.0)까지 추가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55.3)와 미래 기대지수(79.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올해 들어 최고치(109.7)를 기록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전월비 소폭 증가(전월비 20.9만 개)하는 데 그치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5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 미국의 인플레이 지표가 최근에 현저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2.6 (0.9)	2.0 (1.8)	-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6 (-0.3)	-0.1 (-1.6)	0.2 (3.7)	0.1 (0.4)	0.6 (2.4)	-0.5 (0.2)	-0.5 (1.2)
내구재수주	18.4	8.3	0.5	-0.1	-	3.3	1.2	1.8	-
소매판매	18.2	9.7	0.1	1.1	0.0	-0.9	0.4	0.5	0.2
소비자물가	4.7	8.0	1.0	0.9	0.7	0.1	0.4	0.1	0.2
실업률(%)	5.4	3.6	3.6	3.5	3.6	3.5	3.4	3.7	3.6
무역수지(10억U\$)	-841.6	-951.2	-213.5	-201.0	-	-60.6	-74.4	-69.0	-
ISM 제조업지수 <sup>1)</sup>	60.6	53.5	49.2	47.1	46.7	46.3	47.1	46.9	46.0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12.0	104.5	104.2	104.5	105.3	104.0	103.7	102.5	109.7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3.8	114.8	111.6	109.4	106.8	108.3	107.5	106.9	106.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 일본 : 5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금융완화 기조 변화 가능성 제기

- 5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적자 규모가 수입의 대폭 감소에도 수출 정체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우에다 日銀(BOJ) 총재의 현 금융완화 지속 시사 발언에도 국채금리 변동 폭(10년물 기준 현재  $\pm 0.5\%$ ) 확대 등을 통한 금융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

###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4	0.1	0.7				
광공업생산	5.8	0.0	3.1	-1.7	-1.8	3.7	0.3	0.7	-2.2
민간기계수주	6.0	5.5	-1.6	-4.7	2.6	-4.5	-3.9	5.5	-7.6
소매판매	2.0	2.6	1.3	1.2	2.5	2.1	0.3	-1.1	1.4
소비자물가	-0.2	2.5	0.9	1.1	0.5	-0.6	0.3	0.6	0.0
실업률(%)	2.8	2.6	2.6	2.5	2.6	2.6	2.8	2.6	2.6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6,312	-5,662	-5,185	-920	-759	-436	-1,382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4.3	112.0	111.7	109.7	108.3	108.9	108.0	108.1	109.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 중국 : 6월 내·외수 지표 부진,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지난 6월 생산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는 등 내·외수 여건의 약세를 시사.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7.1%)를 하회하는 6.3%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연간 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하향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3.9	5.6	3.5	4.4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5.1	3.8	5.1	4.7	4.0	3.8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0.6	18.4	12.7	3.1
소비자물가	0.9	2.0	1.8	1.3	0.1	0.7	0.1	0.2	0.0
수출(달러화기준)	29.7	7.1	-6.9	0.1	-5.4	14.3	8.0	-8.0	-13.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 유로존 : 5월 실물지표 미약, 역내 인플레 둔화로 통화정책 변화 관심

- 5월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경제체감지수도 하락세가 지속. 역내 인플레 지표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4	-0.1	-0.1				
산업생산	8.8	2.2	0.0	-0.5	-0.2	1.8	-4.4	1.0	0.2
소매판매	5.1	0.9	-0.8	-1.0	-0.3	-0.3	-0.4	0.0	0.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9.3	10.0	8.0	8.5	6.9	7.0	6.1
무역수지(10억유로)	98.5	-342.4	-126.8	-64.1	-2.7	-2.2	12.3	-8.0	-0.9
경제체감지수 <sup>1)</sup>	110.7	101.9	97.2	95.3	99.3	99.3	98.9	98.9	96.4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반등 전환 &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에도 미국의 인플레 지표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 월말로 예정된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으로 반등세
- 유가는 7월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美 원유재고 감소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IEA의 세계 원유수요 전망치 하향, 달러화 강세 전환 등의 영향에도 배럴당 80달러로 상승

###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25일
엔/달러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0.90
달러/유로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1055
미 국채 (10년만기)	4.05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88
WTI유	86.5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0.0
두바이유	90.0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3.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5월 전산업생산 +1.3%

○ 지난 2분기 국내 실질GDP가 소비와 투자, 수출의 동반 감소 영향에도 수입 급감에 따른 순수출(수출 - 수입) 확대에 힘입어 전기비 성장률이 0.6%로 상승

- 민간소비가 2분기 만에 감소(전기비 -0.1%)하고, 설비투자도 전분기에 이어 추가 감소(-0.2%)한 데 이어, 수출 역시 감소(-1.8%)한 모습이나, 수입이 대폭 감소(-4.2%)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1.3%p) 전환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4.1*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	3.4 (1.1)	2.0 (1.1)	-1.0* (-1.3*)	-0.9* (1.3*)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	-8.2 (-2.7)	-7.6 (4.7)	-9.0* (-0.6*)	-7.3* (3.2*)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	-8.4 (-2.6)	-7.6 (5.1)	-9.2* (-0.6*)	-7.5*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	8.5 (2.1)	6.0 (-0.4)	2.9* (-0.5*)	2.0* (-0.1*)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	0.4 (5.2)	0.1 (0.1)	-1.4* (-2.6*)	-0.6* (0.4*)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	4.1 (1.2)	1.9 (-2.5)	4.4* (0.9*)	-4.3* (3.5*)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	19.5 (3.5)	12.1 (-4.2)	12.3* (1.2*)	5.4* (0.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8	108.3	108.9	108.8*	-	108.7	109.5*	110.0*	110.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0.5	100.1	99.2*	-	99.2	99.6*	99.8*	99.9*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5	109.4	-	109.3	109.4	109.4*	109.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3	100.0	99.5	98.9	-	98.9	98.6	98.4*	98.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증가 전환(전월비 3.2%)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 증가율(1.3%)을 기록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4.4%)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3.2%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4%)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소폭 감소(-0.1%)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3.5%)와 준내구재(6.4%) 및 비내구재(4.6%) 등의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세(5.3%)를 회복하고, 설비투자도 운송장비(6.2%)와 기계류(1.3%)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상당폭 증가(3.5%)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입액 등이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3%)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에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코스피지수,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하면서 재차 상승 전환(0.3%)

#### □ 물가 : 6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0.2%

- 6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6%) 등 소수 부문에서 하락한 모습이나, 주택·수도·전기·연료(0.5%), 음식·숙박(0.2%),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2.7%)
- 6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하락(전월비 1.5% → -1.3%)하고, 공산품(-1.0% → -0.6%) 가격도 좀 더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0.0% → 0.1%)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전월비 기준 3개월 연속 하락(전년동월비 -0.2%)

####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5.2 (0.8)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5.0 (0.7)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0.6* (-0.3*)	5.1 (0.4)	4.8 (0.2)	3.3 (0.1)	1.6 (-0.1)	0.5 (-0.4)	-0.2* (-0.2*)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0.3* (0.1*)	3.0 (0.2)	2.8 (0.3)	1.9 (0.2)	1.0 (0.2)	0.1 (-0.3)	-0.3*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6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확대

- 지난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반기말 계절요인(대출 일시상환 등) 등에 의하여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3년 5월 +7.8조원 → 6월 +5.5조원, 대기업 +2.4조원, 중소기업 +3.1조원)
  - 대기업 대출이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
  - 중소기업 대출 역시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분기말 계절요인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
-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상환 등으로 인해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3년 5월 -2.9조원 → 6월 -0.8조원)
- CP·단기사채는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단기부채 상환 등으로 순상환 지속  
(2023년 5월 -3.7조원 → 6월 -0.5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약간 더 확대  
(2023년 5월 +0.3조원 → 6월 +0.4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6월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 원화대출	45.8	5.1	59.5	6.0	39.8	7.5	7.8	<b>5.5</b>	1,210.1
(대 기 업)	1.3	-1.1	15.0	0.6	16.6	3.1	3.4	<b>2.4</b>	233.5
(중소기업)	44.4	6.1	44.6	5.4	23.2	4.4	4.4	<b>3.1</b>	976.6
〈개인사업자〉	19.4	3.2	14.0	1.7	3.4	1.0	0.8	<b>0.2</b>	446.2
■회사채 순발행	13.6	2.8	-0.3	-1.2	5.2	-0.9	-2.9	<b>-0.8</b>	..
■CP 순발행	8.0	0.1	11.3	-2.5	2.4	1.7	-3.7	<b>-0.5</b>	59.0
■주식발행	14.7	2.4	18.9	1.2	2.8	0.1	0.3	<b>0.4</b>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 6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된 영향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하게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역시 상당폭 확대  
(2023년 5월 +4.2조원 → 6월 +5.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자금수요 지속과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5월 +4.2조원 → 6월 +7.0조원)
- 기타대출은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전월비 감소 규모가 확대  
(2023년 5월 -0.05조원 → 6월 -1.1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6월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 가계대출	41.7	6.3	0.1	0.2	4.2	2.3	4.2	5.9	1,062.3
■주택담보대출	30.4	5.1	10.2	1.4	16.0	2.8	4.2	7.0	814.8
■기타대출	11.3	1.3	-10.3	-1.2	-11.7	-0.5	-0.05	-1.1	246.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7월 중순(7월 11일 ~ 25일) 금리 약보합 & 원/달러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 둔화 발표 이후 美 국채금리의 하락세와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단기 하락에 따른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  
(7월 11일 3.703% → 7월 25일 3.645%, -0.06%p)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6월 인플레이 둔화 발표와 중국의 부동산 지원 조치 발표, 호주중앙은행(RBA)의 금리 동결 발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부진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7월 11일 1,293.7원 → 7월 25일 1,275.4원, -18.3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5월	6월	7.25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46	3.66	3.65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26	4.47	4.44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6	3.75	3.75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1	4.02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27.2	1,317.7	1,275.4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46.0	907.0	907.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7.5%, 전월비 +3.2%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8.5%), 기타운송장비(4.9%)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6.7%), 전자부품(-19.9%), 화학제품(-16.6%), 섬유제품(-10.1%) 기계장비(-6.8%), 1차금속(-2.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여전히 상당폭의 감소세(-17.8%)가 이어지고, 중공업(-7.2%)과 경공업(-9.9%)도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 통신·방송장비(-16.9%), 화학제품(-2.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동차(8.7%), 기계장비(6.1%), 섬유제품(4.9%), 반도체(4.4%), 1차금속(0.7%), 전자부품(0.2%) 등 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증가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99.6)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5%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3%로 전월과 달리 6.8%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약간 더 확대(15.6% → 16.7%,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된 반면, 출하 감소폭이 축소(-6.7% → -2.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월보다 2.0%p 상승

### □ 서비스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2.0%,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4.7%), 정보통신(-5.4%)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7.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1.7%) 등 업종이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2.0% 증가

- 전월비로는 숙박·음식점(-4.5%), 정보통신(-0.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0%)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도소매(1.6%), 운수·창고(1.1%) 등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0.1%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0.6%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는 0.9% 증가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8.2	109.7	108.4	107.1	99.5	108.9	101.7	105.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1.4	-6.4	-9.7	-7.6	-9.0	-7.3	3.2
<b>제조업 (원지수)</b>	9,569.5	108.4	109.9	108.8	107.1	98.8	109.1	102.1	105.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4	-6.7	-10.0	-7.6	-9.2	-7.5	3.2
섬 유	113.4	2.0	-3.5	-3.9	-10.1	-7.8	-7.8	-12.8	-10.1	4.9
화 학	854.2	8.6	-9.9	-16.9	-20.1	-20.4	-19.7	-20.0	-16.6	-2.7
철 강	496.6	5.2	-8.5	-11.9	-23.3	-6.5	0.2	-1.0	-2.6	0.1
반도체	2,023.8	26.8	7.6	1.3	-19.8	-33.8	-26.9	-21.1	-16.7	4.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4.2	10.8	0.7	22.6	-20.3	-11.5	12.9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4.3	-1.1	17.6	-15.1	-3.6	-18.3	-16.9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7.8	5.9	-4.3	-8.0	-15.7	-16.4	4.4
기계, 장비	737.3	12.1	1.1	7.2	5.4	0.7	4.9	-4.1	-6.8	6.1
자동차	987.5	6.3	9.1	18.8	17.5	21.6	27.1	16.7	18.5	8.7
조 선	66.0	-7.2	20.7	21.2	23.4	19.6	11.6	5.7	-2.5	-3.9
- 중 공 업	-	9.9	1.5	1.2	-7.3	-10.7	-7.9	-9.1	-7.2	3.2
- 경 공 업	-	1.3	0.4	2.5	-4.0	-5.6	-6.2	-9.5	-9.9	2.7
- 제조업ICT	-	19.3	2.2	-2.1	-19.7	-30.5	-26.4	-22.0	-17.8	2.2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05.0	112.0	112.5	117.9	111.8	117.5	113.9	11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8.5	5.8	6.4	6.0	2.9	2.0	-0.1
도소매	193.9	4.3	2.7	3.5	1.1	2.8	0.5	-2.6	-1.4	1.6
운수및창고	78.4	4.2	17.7	23.8	17.7	17.3	18.6	12.3	7.5	1.1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23.0	9.8	16.3	17.9	1.8	-4.7	-4.5
정보통신	88.9	12.2	1.7	3.6	-1.0	-1.7	-3.6	-3.9	-5.4	-0.7
금융및보험	167.4	8.0	8.4	8.8	12.5	10.7	10.3	9.9	9.8	-4.1
부동산	38.7	2.3	8.0	9.5	6.0	4.1	5.8	2.3	2.8	3.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5.0	-0.3	1.8	2.8	0.9	1.7	3.2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6.8	4.2	5.6	6.4	4.9	2.3	-1.0
교 육	73.5	1.5	1.2	0.7	0.3	1.1	0.9	-0.5	-0.4	-0.2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3	6.3	5.7	5.0	3.0	3.9	1.5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63.7	26.6	20.8	23.5	12.7	0.4	-0.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6.9	5.9	13.8	18.0	4.2	3.4	-2.0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4.8	0.6	1.1	-4.2	-2.2	4.4
- ICT서비스업	-	6.2	5.5	6.3	2.4	2.2	-1.1	-1.3	-0.6	0.9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 용

### □ 취업자 수 : 6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6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둔화된 반면,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보합(1.2%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0.9% → -0.8%)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둔화(1.8% → 1.6%)
-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약간 둔화(-3.0% → -2.8%)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가 2개월 연속 둔화(1.8% → 1.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0.7% → 0.7%)에서 취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7% → 7.7%)과 정보통신업(6.2% → 5.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6.0% → 4.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2% → 1.1%)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6%)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6%로서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산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7,714	28,223	28,432	28,835	28,812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1	1.7	1.3	1.2	1.2
농림·어업	0.9	4.6	2.0	-1.6	-0.3	-3.5	2.1	0.8	-0.9	-0.8
제조업	-0.2	3.1	2.9	-0.8	-1.1	-0.6	-1.1	-2.1	-0.9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1.8	2.3	2.0	1.8	1.6
건설업	3.7	1.6	0.2	-1.0	-2.4	-0.2	-1.0	-1.5	-3.0	-2.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1.8	2.0	2.0	1.8	1.6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0.2	2.7	1.2	1.5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6	2.9	2.8	2.7	2.8	3.0	2.9	2.6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6	2.7	2.6	2.5	2.6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6월 수출 6.0% 감소, 수입 11.7% 감소,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IT업황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에도 IT품목들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6.0% 감소(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하고, 지역별로는 EU, 중남미, 중동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 전환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27.3%)한 데다,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9.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1.0% 하락하고, 도입물량이 3.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28.6% 감소한 약 61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500 (-7.7)	549 (-13.9)	495 (-14.4)	521 (-15.4)	542 (-6.0)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7 (-13.0)	553 (3.5)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무역수지	293	-478	-186	-226	-38	-53	-47	-27	-22	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선박류·기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글로벌 수요 부진과 메모리 가격 약세 지속,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에도 PC 수요 개선, 모바일 신제품 출시, AI 서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22년 10월 이후 감소폭이 최저치)

- **자동차** :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 위축 우려에도 생산 정상화 및 대기수요 실현에 따른 판매 증가와 전기차 등 高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6월중 최고 실적치를 달성(12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주요국 내 현지 완성차 공장 생산 정상화와 국산 자동차들의 글로벌 판매량 및 점유율 제고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21년도 수주물량의 생산 및 수출 본격화와 高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인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 실적치를 기록
- **디스플레이** : IT·프리미엄(LTPO)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OLED 수출 회복에도 모바일 수요 회복 둔화로 인한 LCD 감산 및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둔화로 인한 휴대폰 교체 시기의 장기화 및 출하량 감소,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22년 4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
- **철강** : 주요국들의 건설 경기 회복의 지연과 주요 철강재 단가 하락 및 가격 약세에도 철강 구조물 등 해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등에 힘입어 '22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
- **섬유** : 의류 완제품 수출의 소폭 증가에도 주요 원사·직물 등 섬유 소재 수요 감소와 아시아 소싱국들의 신규 오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글로벌 항공 이동 증가에 따른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글로벌 수급 불균형 완화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계절적 요인에 따른 냉·난방공조 수요 감소 등에도 북미 지역 중심의 굴착기 등 산업기계 수출 증가, 美·EU·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주요 선진국들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 회복과 반도체 수급 개선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 전방수요 위축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생산 조정 및 수출물량 감소, 낸드 공급과잉 및 SSD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47.0	63.6	40.3	49.3	58.3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13.3	-5.6	-1.6	-0.8	5.7
선박류	16.4	-20.9	-22.6	1.9	21.1	-10.5	-26.1	59.2	-47.9	98.6
일반기계	4.6	2.0	-3.1	-2.0	5.7	12.9	-0.9	7.7	1.5	8.1
철 강	36.9	5.7	-17.6	-15.8	-5.7	-9.9	-10.9	-10.7	-8.9	3.1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1	-18.2	-24.5	-23.5	-26.6	-22.0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5.0	10.2	-18.6	-29.0	-34.8	-40.9
섬 유	14.0	-4.0	-18.7	-15.1	-11.0	-4.3	-12.1	-15.0	-15.0	-2.4
가 전	24.0	-7.4	-24.0	-8.5	-7.5	4.3	-8.3	-10.3	-13.7	3.3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2.8	-20.7	-2.0	-42.5	-34.3	-12.1	-12.0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64.9	-57.6	-73.3	-57.5	-53.5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42.5	-34.5	-41.0	-36.2	-28.0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0	-41.6	-29.3	-7.4	-1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b>부록</b>	<b>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b>
-----------	-------------------------

국회미래연구원(2023년 6월)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

-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요국 간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중요성이 증대

□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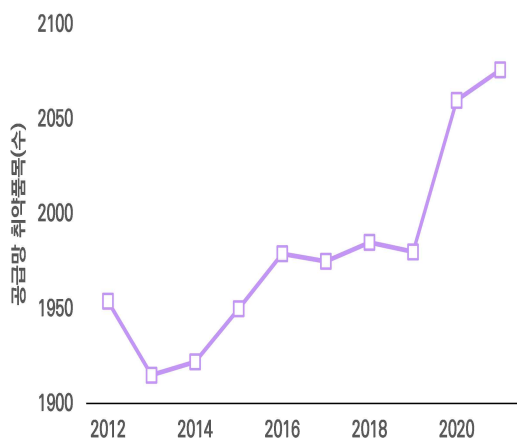
○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총 수입품목(5,084개)에서 2,081개 품목이 취약(특정국에서의 수입 50% 이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실정

-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이 전체 취약품목 가운데 약 49%(1,02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재(1,194개)가 가장 많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취약품목 가운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87개로 나타나 아세안 지역에 속하는 베트남이 새로운 공급망 허브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

○ 기술 수준별 공급망 취약품목의 의존도는 중국·미국·일본·베트남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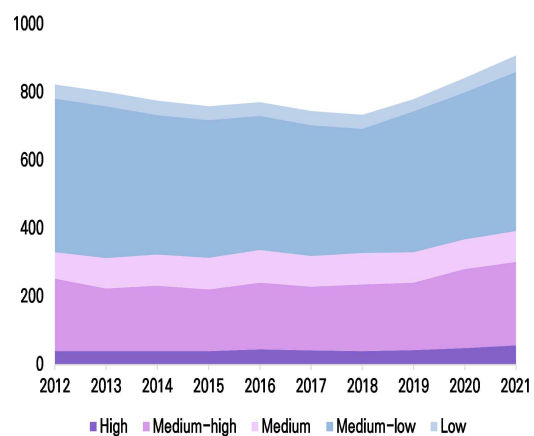
- 공급망 취약품목 가운데 Medium-low와 Low 기술 수준의 품목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이들 품목의 대부분이 베트남·이탈리아·인도·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태국 등 7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집중
- High, Medium-high 기술 품목들은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4개국에 집중
- 공급망 취약성은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개선이 어려워지나, 공급망 취약성의 개선은 수입 집중도의 하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급망 취약품목 수 변화 〉



자료: BACI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기술 수준별 對중국 취약품목 추이 〉



자료: BACI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 □ 주요 미래 기술과 핵심 광물자원

-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자원의 중국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입법 경쟁이 심화
  -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던 관례를 깨고 산업정책을 되살리고 대규모 산업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을 통과
  - 유럽연합도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통해서 시장점유율 제고(2030년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산업의 원자재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함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등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기술력 강화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이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
  - 미래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광물자원 대부분이 순수입 품목에 해당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당 광물들의 수입 비중이 50%인 품목이 대부분
    - \* 국내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자원 : 니오븀(브라질, 93%), 희토류(중국, 90%), 마그네슘(중국, 85%), 인듐(중국, 83%), 스트론튬(독일, 73%), 텔루륨(일본, 67%), 텅스텐(중국, 66%), 게르마늄(캐나다, 59%), 리튬(중국, 58%), 바나듐(중국, 54%), 갈륨(미국, 51%) 등
  - 주요 미래 기술과 관련 산업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

## □ 결론 및 시사점

- 공급망 취약성의 개선 방안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 협력이 중요
  -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품목의 중요성, 해외 의존도, 수출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국제전략 기초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와 관련된 순환경제 전략에도 관심이 필요
  - 핵심 광물자원의 재사용과 관련된 순환경제 전략은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자원 부존량·채굴시설 등에 따른 제약을 일정 수준 극복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 전략과 상호 보완적임.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7.24일 )	( 7.25일 )	( 7.26일 )	( 7.27일 )	( 7.28일 )
	 7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7.26일)  23.2분기 실질GDP (속 보 치)	 5월 경가상행지수 (수 정 치)  7월 소비자동향조사	 BOJ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23.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내구재수주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제감지수  6월 개인소비  6월 산업활동동향
( 7.31일 )	( 8.1일 )	( 8.2일 )	( 8.3일 )	( 8.4일 )
 6월 산업생산(잠)  6월 소매판매(잠)  7월 소비자물가(예)  23.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실 업 률  6월 실 업 률  7월 ISM 제조업지수	 7월 소비자물가	 7월 ISM 서비스업지수	 6월 소매판매  7월 고용보고서
( 8.7일 )	( 8.8일 )	( 8.9일 )	( 8.10일 )	( 8.11일 )
 6월 경가상행지수 (잠 정 치)	 7월 수출입통계  6월 무역수지	 7월 소비자물가  7월 고용동향	 7월 소비자물가	 7월 생산자물가
( 8.14일 )	( 8.15일 )	( 8.16일 )	( 8.17일 )	( 8.18일 )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7월 고정투자  23.2분기 실질GDP (잠 정 치)  6월 산업생산(수)  6월 소매판매(수)  7월 소매판매	 6월 산업생산  6월 수출입통계  23.2분기 실질GDP (수 정 치)  7월 산업생산	 7월 무역수지(잠)  6월 기계수주  7월 경가상행지수	 7월 소비자물가  7월 소비자물가(수)